

월 1000대 판매... 전자사전, 학습·단순함 '틈새시장' 공략

디지털 피로 시대, 소비자 주목
기속학교 필수템으로 부활해 인기
중고 제품 8~20만원대 가격 형성
온라인 학원 사이트선 직접 판매도

스마트폰 시대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전자사전이 여전히 틈새 시장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중·고등학생들의 필수 학습 도구였던 전자사전은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사양길에 접어드는 듯 보였으나, 특정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1일 국내 유일의 전자사전 정식 유통 업체에 따르면, 전자사전은 매달 100대 이상 꾸준히 팔리며, 성수기인 방학 시즌에는 월 1000대까지 판매량이 급증한다.

현재 국내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전자사전은 대만 브랜드 '베스타'가 유일하며 아이리버 등 타 브랜드 제품은 대부분 단종돼 중고 제품으로 거래되고 있다. 중고 전자사전은 8만원부터 2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전자사전의 주요 구매층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와 기속학교 학생, 만학도 등이다. 특히, 기속형 학교에서는 휴대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Y2K 트렌드의 영향으로 전자사전을 학습 도구로 구매했지만, 스마트폰의 유혹에 방해받는 학생의 모습'.

폰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가 많아 전자사전이 매우 유용한 학습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인터넷 연결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은 학습자들도 종이사전보다 직관적이고 사용이 쉬운 전자사전을 더 선호한다. 버튼 몇 번으로 단어를 쉽게 검색하고 발음까지 확인할

수 있어 주요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사전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함'에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앱)과 알림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과 달리, 전자사전은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한 학부모는 "전자사전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 없어 게임이나 다른 메신저 앱으로 주위가 흐트러지지 않아 훨씬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기속학교 입학설명회나 학원 강사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자사전을 추천하기도 한다. 심지어 실제 한 온라인 학원 사이트에선 수강생들에게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또한, 최근 Y2K(2000년대) 트렌드의 부상과 함께 아날로그 감성을 선호해 전자사전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중고 기기를 판매하는 상인 최모 씨는 "전자사전을 찾는 고객 중엔 학습용뿐만 아니라 '옛날 느낌'을 좋아해서 구매하는 젊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자사전이 과거처럼 부활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수요층을 기반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어 전자사전에 이에 적합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중소 대표상품 총집결"

공영홈쇼핑이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진행되는 '12월 동행축제'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했다.

동행축제 기간 동안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후 방송 상품을 앱으로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배송완료 후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주말에는 '동행축제 행복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 동행축제 기간 매주 토요일·일요일에 선착순 3000명을 대상으로 10%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행사다. 쿠폰은 ID 당 하루에 1회 발급받을 수 있다. 3만원 이상 방송 상품 구매 시 적용 가능하며 최대 5000원까지 할인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 포함 7일이다.

연말을 맞아 이웃과 온기를 나누기 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4일부터 18일까지 '기부엔데이' 이벤트를 통해 공영홈쇼핑 앱에 '희망 메시지'를 남기면 2천 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수출 14개월 연속 증가... 반도체·철강 강세

산업부, 지난달 수출 전년비 1.4% ↑
고부가 전환, 반도체 수출 30%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과 기상 악화에 따른 선적차질 등으로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으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0%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도 1년 전보다 3.6% 증가한 24.0억 달러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로써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 플러스는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가 견인했다. 지난 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0.8% 증가한 125억달러로 11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수출이 매 분기 증가하면서 1~11월 누적 기준 127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우리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인 HBM과 DDR5 등으로 신속 전환하는 가운데, AI 서버와 기업용 SSD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메모리 수출을 중심으

로 증가흐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14억달러(+19.6%)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철강 수출은 1.3% 증가한 27억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선박 수출도 1년 전보다 70.8%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다만,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6억 달러다.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11월 초 파업과 임금 및 단체협상 지연 영향으로 완성차업체로의 부품공급차질이 발생하며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 영향으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석유제품(37억달러, -18.7%)·석유화학(36억달러, -5.6%) 수출도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월말 기상악화에 따른 일부 선적 차질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최대 수출지역인 대중국 수출은 113억달러로 5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보험세를 보였다. 대미국 수출은 104억달러로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98.2억달러, +0.4%)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시몬스의 블랙포레스트 쿠스 듀얼 서포트 토퍼.

시몬스 "쿠스 다운의 따뜻함" 프리미엄 침구 라인업

시몬스가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포근한 숙면을 선사할 수 있는 '연말 선물 아이템'을 제안한다.

1일 시몬스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수면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수면 제품들이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엄선한 프리미엄 소재와 탁월한 기술력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선사하며 연말 선물로 제격인 다채로운 제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쿠스 레어 듀얼 라이트'는 추운 겨울과 혹독한 해풍 등을 견뎌낸 헝가리산 쿠스 다운이 90% 이상 함유돼 안락함과 포근함을 선사한다. 또한, 실내 온도와 습도에 반응하며 열이 많은 사람도 답답함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연말 특가전 돌입!... 최대 270만원 할인 쏟아진다

완성차 업계,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
무이자 할부·현금 지원 혜택 강화

국내 자동차 시장이 여름보다 더 뜨거운 12월을 맞이하고 있다. 한해의 마지막 한달을 앞두고 완성차 업체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신차 그랑 폴레오스 출시로 끝까지 탈출에 성공한 르노코리아는 상승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올 연말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르노코리아는 12월 쿠팡형 SUV 아르카나 구매시 최대 170만원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르카나 기술린



쉐보레 올 뉴 콜로라도.

모델과 E-Tech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의 경우 일반 할부 및 잔가 보장 '스마트'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100만

원의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말 조기 출고 혜택 최대 30만원, 각 판매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과 재구매 1회 기준 20만원 혜택까지 적용하면 최대 170만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스테디셀러 중형 SUV QM6는 25만 대 누적 판매를 기념해 2025년형 SP 모델에 100만원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스마트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특별 혜택 규모를 200만원으로 확대되며, 전시장 별 특별 프로모션 등을 적용하면 최대 27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M6 인스파이어 트립 구매 고객에게는 250만원의 특별 프로모션이 제공된다. /양성문 기자 ysw@

/양성문 기자 ysw@